박물관 뜰에서 만나는 미륵 괘불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전'
국립중앙박물관 4월 19일~10월 9일

2023부처님오신날 맞아 18회 괘불전
높이 8m, 너비 5m 넘는 거대 화폭
본존불 미륵불 괘불 현존 단 2점 뿐
화폭 둘레 장식에 범자(梵字) 주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02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괘불전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을 개최한다.

'긴 계곡'이라는 뜻을 가진 장곡사는 그 이름과 같이 칠갑산의 깊은 계곡 안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국보 '철조약사여래좌상과 석조대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국보 '청양 장곡사 괘불'은 조선 1673년(현종 14) 충청남도 청양 장곡사에서 승려와 신도 등 83명의 시주와 후원으로 조성됐다. 삼베 17폭을 옆으로 이어 높이 8m, 너비 5m가 넘는 거대한 화폭을 만들었으며, 철학 등 5명의 승려 장인이 함께 그렸다. 화면의 중앙에는 거대한 본존불이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꽃 가지를 들고 서 있으며, 본존불 좌우로 불 · 보살 · 나한 · 천왕 등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장곡사 괘불은 화면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화폭에 그려진 총 39구의 불 · 보살 · 권속들 옆에는 모두 붉은색의 네모칸을 마련하여 이름을 적었다. 화면에 나타난 도상으로는 알기 어려운 각각의 이름을 적었다. 화면에 나타나는 도상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각각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중앙의 본존불 옆에는 '미륵존불'이라는 명칭이 적혀있다. 현재 기록으로 본존불이 미륵불임을 알 수 있는 괘불은 장곡사 괘불과 '부여 무량사 괘불(1627)' 2점뿐으로, 미륵불 괘불은 흔히 볼 수 없는 괘불이다.


청양 장곡사 괘불.


장곡사 괘불 화기.


장곡사 괘불 진언.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화기(畫記)'에는 "강희 12년(1673) 5월 청양 동쪽 칠갑산 장곡사 대웅전 마당에서 열린 영산대회에 걸기 위한 괘불을 만들었다"고 적혀있다. 괘불을 조성한 시기와 사찰 이름 뿐 아니라 '영산대회'라는 행사의 명칭, 그리고 '대웅전 마당'이라는 구체적인 행사의 장소까지 적었다. 장곡사 괘불이 조성된 후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화폭의 둘레를 장식하고 있는 고대 인도의 문자인 범자(梵字) 또한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범자들은 불교의 신비로운 주문인 진언(眞言)으로, 불상이나 불화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종교적 신성성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염송하는 것이다. 장곡사 괘불은 화면 둘레에 범자를 장식한 조선시대 괘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에서 청양 장곡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출품된 국보 '금동약사여래좌상(고려 1346년)'에 이어, 이번에는 국보 '청양 장곡사 괘불'을 선보인다. 1673년 5월 어느 날, 깊은 계곡의 장곡사 뜰에 괘불이 걸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지 꼭 350년이 됐다. 이제 박물관에 펼쳐진 부처의 뜰에서 장곡사 괘불을 만난다.

괘불은 사찰에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 야외에 모시는 대형 불화다. 높이가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 의식에 사용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사찰에 소장된 괘불을 특별히 공개하는데, 올해는 열여덟 번째 괘불전을 맞이하여 충청남도 청양 장곡사의 괘불을 소개한다.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콘셉트 · 포스터 공개

'일상의 회복', '과거와 현재의 공존'
5월 11~15일 온 · 오프라인 통해 개최
오색빛닭 공동작업한 포스터도 공개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일상의 회복',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콘셉트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 시간 동안 물리적 · 사회적 거리로 인해 벌어진 일상의 간격을 회복하고자 '일상의 회복',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했다. 이에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과거를 답습하지도, 현재에 매몰되지도 않는 일상 회복의 의미와 과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인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대, 전 세계가 함께 노년의 삶을 영화로 이해해볼 수 있는 글로벌 세대 공감 영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포스터는 1730년 한양에서 스물 한 명의 노인들이 모여 궁궐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연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 연회는 스물 한 명의 노인 뿐 아니라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두가 흥겨워 보이는데, 이는 조선시대 기록하인 '이원기로회계첩' 속 한 장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흥겹게 어우러진 그림 속 이 장면은 오색빛닭이 생각하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모습과 무척 닮았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세대를 넘어,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듯이 약 300년의 세월을 넘어온 조선의 그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풀어가고 있다.

이번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포스터도 공개됐다. 포스터는 우리나라 전통회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화콘텐츠메이커 오색빛닭과 함께했다. 우리나라의 옛 그림들을 재조명한 오색빛닭의 작품에는 '전통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가치가 담겨 있으며, 예술적 감성과 섬세한 작업으로 전통을 현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색빛닭은 한국 전통화를 기반으로 한 VR 콘텐츠, 온라인 체험전시, 미디어월, 상품 제작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중소기업 벤처부 '예비창업패키지' 우수사업체로 선정,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KCDF '전통문화청년 초기창업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천년의 빛을 깨우다' 展

통도사 성보박물관 4월 30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천년의 빛을 깨우다-불교미술을 이어가는 명장들' 展을 개최한다.

갤러리케이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 선조들의 예술혼을 되살려 새로운 불교미술의 찬란함을 더해가는 한국 명장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정수화를 비롯해 강록사, 박강용, 한견우, 김종민, 최상훈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으로는 강록사 작가의 수월관음도, 정수화 작가의 지장보살도 등이 소개된다.

천년을 자랑하는 고려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그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장인들의 불심으로 재현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갤러리케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화재의 의미를 선조들의 옛 유물에 의미부여를 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곁에 그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수많은 명장들이 그 빛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우리의 예술혼이 되살아날 것 같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